

중국 고대사회의 시간활용*

최진목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 머리말

현대사회는 시간의 정밀성과 속도감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라고 할 만큼 시간이 갖는 비중과 중요성은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비해 전통사회에서 특히 중국에서 “해뜨면 나가 일하고 해지면 들어와 쉬는”(日出而作 日沒而息) 생활을 하는 일반 민들에게 수치로 분절화된 시간은 그다지 주목할 만한 개념이 아니었다. 그러나 전통사회라고 해도 시간의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해가 뜨고 지는 하루의 변화, 춘하추동의 계절변화, 꽃이 피고 지거나 곡물을 파종하고 수확하는 시기를 알려주는 대자연의 물후(物候) 변화 및 생로병사 등의 인생의 변화가 가져오는 삶의 과정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 인식하지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16).

주제어: 시간활용, 단위시간, 문서행정, 절기, 월령(月令), 원회의(元會儀)
the usage of time, unit-time, document administration, the divisions of the year,
the lunar order, New Year Ritual

않을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순응과 조화 혹은 극복의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다. 본고는 중국 고대인들의 시간에 대한 이러한 대응방법과 활용에 관해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시간이 일면 근대사회처럼 수치로 표시할 수 있는 계량단위이지도 않았고, 연월일 및 시각 등의 계량화에도 큰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다. 단위시간을 표시하는 시(時)라는 말은 주로 시기(時期)라는 표현으로 등장하여 추상화된 개념으로의 어떤 때 즉, 기회나 조건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고, 때로는 우주간에 존재하는 모종의 신비적인 역량이나 추세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쓰여 시운(時運) 즉, 항우의 “시불리혜”(時不利兮)라는 표현처럼 시세의 운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작이나 식물에서의 생명의 발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¹⁾ 그러나 시는 대부분 천시(天時), 사시(四時)처럼 하늘이나 기상, 물후 등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모습 혹은 형세를 의미하였다. 이때 시일(時日)은 고대 달력에서 연월일과 함께 표기된 간지(干支)로 나타나 그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인사(人事)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특정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물론 간지는 후대 점차 60이라는 그 순환주기가 강조되어 인간과 그 사회의 성장성쇠를 의미하는 개념이 덧붙여지기도 하였다.

한편 간지로 표기되는 연월일 시각의 단위시간개념이 불철저하였던 것은 상대적으로 지속적 시간 즉, 우주적인 시간으로서의 “주”(宙)라든지, 어떤 길이를 갖는 지속적 시간의 의미를 말하는 “구”(久) 등의 개념이 유행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시간을 분절적으로 나눈 주야나 세월 역시 하루 혹은 년과 월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지속적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였다. 이런 표현방식은 주로 우주와 인생의 대비에 주로 사용되어 시간의 흐름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단어

1) 詹冬華, 「中國古代三種基本的觀時方式; 切入古代時間意識的一個維度」, 『文史哲』 2008-1, p. 81.

로 등장하였다.²⁾

그러나 분절화된 시간단위에 대한 관심과 표현방식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척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하루를 단위시간으로 나누는 시제(時制)도 존재했었고, 1일을 100각(刻)으로 나누거나, 혹은 1시간을 10분으로 나누는 분제(分制) 등도 시행되었다. 시제에 관해서는 진한시기를 포함한 고대사회에 적어도 1일 12시간제, 16시간제 혹은 18시간제나 32시간제가 존재했다는 등의 논쟁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³⁾ 이들 논쟁이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시제의 존재는 고대사회에 적어도 시간을 장악하는 황제, 즉 국가권력에 의한 통일된 시간제가 존재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들 시제는 시간을 물론 숫자로 표기한 것은 아니고 천간, 지지 혹은 오행(五行)이나 팔괘(八卦) 등의 부호를 사용하였지만 때로는 별도의 시칭(時稱)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중 12시제는 12지지로 표시되면서 이후 폭넓게 사용되어왔기 때문에 그 기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16시간제는 팔괘로 표기하기 유리하기도 했지만, 근래 출토되는 간독자료에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 시간제를 지지하는 견해가 많은 것 같다. 다만 18시간제는 논리적으로 주장되어 왔지만 음양, 오행, 팔괘, 12지지 등 다양한 부호 중 어떤 것과도 결부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웠다고 보는 것이 근래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다. 간혹 천간과 결합한 10시간제나 주가태진간

2) 吳國盛, 『時間의觀念』, 北京大學出版社, 2006, pp. 33-45.

3) 12시간제는 尙民杰, 「居延漢簡時制問題探討」, 『文物』 1999-10; 李天虹 「秦漢時分紀時制綜論」, 『考古學報』 2012-3 등에서 소개되고 있고, 16시간제는 李成珪, 「秦漢帝國的計時行政」(근간); 宋會群 李振宏, 「秦漢時制研究」, 『歷史研究』 1993-6; 李解民, 「秦漢時期的一日十六時制」, 『簡帛研究』 2, 1996 등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18시간제는 일찍이 陳夢家, 「漢簡年曆表跋」, 『漢簡綴述』, 中華書局, 1980)에서, 32시간제는 郝樹聲, 張德芳, 『懸泉漢簡研究』(甘肅文化出版社, 2009)이 각각 주장하고 있다. 최근의 추세는 16시간제가 사용되다가 12시간제가 도입되었다는 12, 16시간제의 병존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周家台秦簡)처럼 28수와 결부된 28시간제의 존재도 상정하기도 하는데,⁴⁾ 이것도 10이 역법상에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현실에 널리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32시간제는 16시간제의 배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용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제의 근거가 되는 현천치한간(懸泉置漢簡)에는 52개 이상의 시칭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지만,⁵⁾ 이는 고대사회의 생활의 속도를 고려할 때 밤낮의 시간을 너무 세분화했다는 측면에서 수긍하기 쉽지 않다. 아마도 어떤 시칭은 자연상태나 일상생활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순한 시간관념에 해당되는 것을 시칭으로 인식한 데에서 오는 오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때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는 12시간제와 『주역』의 8괘구도와 상응하는 16시간제의 존재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이것들의 선후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어느 시점에서 하나로 통일되었는지, 아니면 일정시기 병존한 것인지 등등 많은 의문점들이 아직 명확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다만 천하일통(天下一統)을 강조하고 일원적 지배를 관철하고자 했던 고대제국에서 공적으로는 통일된 하나의 시제만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큰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나머지 시제도 사용된 증거가 충분하다면 이것은 다양한 집단에 다양한 시간개념이 존재한다는 인식처럼 고대인들이 생활하는 다양한 생활공간 속에서 각 분야에서 각기 사용하던 시제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즉 서로 다른 생활분야에서 어떤 특수한 목적이나 이념 속에서 특정 시제나 시간분할이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고는 고대사회의 다양한 생활을 문서행정, 농사활동, 제사와 의례, 질병치료 등의 의료생활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 생활과정에서 사용되는 시간활용의 차이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통일된 시제 속

4) 李天虹, 『秦漢時分紀時制綜論』, 『考古學報』 2012-3, pp. 310-312.

5) 郝樹聲, 張德芳, 『懸泉漢簡研究』, 甘肅文化出版社, 2009 참조.

에 있다고 하더라도 각 분야의 특수성이 서로 다른 시간관념을 내포하였고, 이것이 시간활용에서 일정한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분야를 주로 설명하게 된 것은 고대사회의 자료적 한계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이것들이 고대인들의 생활의 태반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2. 문서행정시간

문서행정은 고대제국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하고, 국가운영의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기본적인 분야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지만, 태반의 출토자료 역시 이 점에 대해 상당한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활용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전래문헌에서는 일(日)아래 시각까지 병기한 사례가 극히 드문 반면, 근래 보고되는 출토문헌에서는 문서행정과정 특히 문서의 수발과정과 관리의 근무규정 등에서 시각을 사용한 흔적이 매우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진한제국이 서면형식의 문서행정에 기초하여 운영되었고 문서를 보고하는 시기방법을 포함하여 문서의 폐기 등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문서기록의 실수나 착오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처벌규정을 두어 문서행정의 정확성을 기했다는 점은 이미 상세히 알려졌다.⁶⁾ 또한 고대제국은 인간의 모든 활동에 대한 수량화과정을 통해 인적 자원을 조직 통제함으로써 생산 분배 소비 등을 효율적으로 장악할 수 있었는데⁷⁾ 행정문서에 기록된 각종 수치가 이러한 제국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시간에 대

6) 李均明, 『秦漢 文書制度考察』, 권인한 등편 『동아시아 자료학의 가능성』,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참조.

7) 李成珪, 『計數화된 인간』, 『中國古中世史研究』 24, 2010 참조.

한 측정과 그 기록은 노동량과 근무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제국의 통치에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아닐 수 없었다. 출토문헌에 등장하는 시칭을 넘어 분까지의 정밀한 기록은 고대제국이 시간기록에서도 매우 정교하게 운영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출토문헌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시간 기록은 우선 문서의 수신과 발신에 관한 것이다. 이하 각종 시칭이 등장하는 몇몇 간독(簡牘)을 검토해 보자.

- ① 서쪽으로 보내는 서 3통, 격문 1통, 문서 1통을 11월 계묘일 일미중 [해가 아직 중천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일 때에 임천의 졸 벽이 무궁의 졸 림에게 인계하였다("出西書三封 檄一 函一 十一月癸卯 日未中時 臨泉卒辟付毋窮卒林 『懸泉置漢簡』; V92DXT1210③; 102).
- ② 양관도위 명이 서 1통을 올렸다. 감로 원년 11월 정유일 일중[일이 중천에 있을 때]시에, 현천역기 덕이 평망역기 □□에게서 받았고, 일중시에 차요역기에게 인계하였다("陽關都尉明上書一封. 甘露元年十一月丁酉 日中時 懸泉驛騎德受平望驛騎□□. 日中時付遮要驛騎. 『懸泉置漢簡』; I 90DXT0114③; 5).
- ③ 남에서 온 서 1통을 거연도위 장이 장액태수부에 알렸다. 11월 갑자일 야대반[밤의 중앙에 해당되는 야반이 지난 다음의 시간]에 당곡의 졸 창이 수강의 졸 보로부터 받았다. 신축일 잠식[누에가 뿜을 먹는 시간] 1분에 임목의 졸 □가 삼정의 졸 흥에게 보냈다. 그 사이의 거리는 28리이고 가는데 □□이 걸렸다. 규정을 2시 2분 … (南書一封 居延都尉章 詣張掖太守府 十一月甲子夜大半, 當曲卒昌受收降卒輔; 辛丑蠶食一分 臨木卒□付卅井卒弘. 界中二十八里 定行□□ 程二時二分. 『居延漢簡合校』 317.27).
- ④ 정월 무오일 야반[밤의 중앙], 임목의 졸 상이 성오의 졸 승으로부터 받아 기미일 일입[해가 지평선을 넘어 들어갈 때]에 당곡의

졸 □가 수강의 졸 해에게 인계하였다. 그 사이의 거리는 98리인데 12시간이 걸린 것으로 확정되었다. 규정을 2시간 2분을 초과하였다(正月 戊午夜半 臨木卒賞受城遯卒勝 己未日入 當曲卒付□收降卒海 界中九十八里 定行十二時 過程二時二分. 『居延新簡』 E.P.C:26).

- ⑤ 햇불은 마땅히 야대반[밤이 2/3 지났을 때] 5분에 누로수에 전달해야 하고 격은 마땅히 계중명[새벽에 닭이 우는 시간을 3단계로 나누었을 때 두 번째 온 시간]에 누로수에게 ……전달해야 한다(火當以夜大半五分付累虜 檄當以鷄中鳴付累虜□□□□. 『居延漢簡合校』 305, 15).

위 문장에는 일미중, 일중, 야대반, 잠식 등의 시칭이 등장하는데 이들 명칭이 모두 시칭인지의 여부는 차지하더라도 확실한 것은 문서를 수발할 때 발송과 수신 시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①과 ②는 문서의 접수와 발송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③과 ④에는 야대반, 야반 등이 등장하여 낮 이외 밤에도 문서가 수발되고 있으며 그 시간이 세밀하게 기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개의 간독은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중에서 2시 2분이라는 표현이 주목된다. 여기에서의 시는 만일 16시간제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90분에 해당되고, 분은 시를 다시 10등분한 것이므로 9분 정도에 해당되는 시간이다. 그렇다면 위 문서는 규정보다 108분 정도 늦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당시 기록의 세밀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⑤ 역시 “야대반 5분”이라는 기사도 ③의 “잠식 1분”과 함께 시간이 분단위로 측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당시 시간측정에 있어 일반적으로 밤의 시간은 별자리를 통해 그 시간을 알아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렇게 정밀하게 기록했다는 것은 적어도 시간을 측정하는 물시계 등의 정확한 기구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실제로 물시계를 사용한 흔적은 많고 『이야진간』

(里耶秦簡) 등에는 “야루(夜漏) 몇 각” 등의 기사가 자주 등장하기도 한다. 한편 다음 자료를 검토해보자.

- ⑤ 1건의 문서를 우송하는데 반일을 지체하면 벌금 1순에 처하며, 1일을 지체하면 벌금 1갑, 2일은 벌금 2갑, 3일은 속내, 3일 이상은 내형에 각각 처한다(令曰 郵一行書留半日 費一盾 一日 費一甲 二日 費二甲 三日 贖耐 三日以上 耐. 『岳麓書院藏秦簡』 1805).
- ⑥ 그 관은 부에서 70리의 거리이다. 1일1야 전송 규정은 160리인데 문서가 2와 1/3일만에 도착하였다. 무슨 이유인가?(官去府七十里 書一日一夜當行百六十里 書積二日少半日乃到 解何. 『居延新簡』 E.P.S4.T2:8A)

위 기사들은 문서우송의 신속 정확함을 추구하면서 지체된 시간에 대한 처벌내용과 이유 등을 묻는 내용이다. ⑤는 만나절 이상 문서전달이 지체되었을 때 처음 반일과 그 다음은 하루 간격으로 지체된 시간만큼 처벌이 강화되는 규정을 보이고 있다. 盾이 384錢이고 甲이 1344錢이라면⁸⁾ 甲은 盾의 3배 반 정도에 해당된다. 처음 반일의 지체보다 다음 반일의 지체가 가중 처벌되고 있는 셈이다.⁹⁾ ⑥은 문서전달의 표준이 하루에 160리 즉 16시간제로 계산할 경우 1시간에 10리를 전달해야 하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문서가 이틀 이상 늦게 도착한 경우이고 그 이유를 묻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경우도 소반일(少半日) 즉 1/3일을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노동량의 계산에서 1일을 표준으로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3일 혹은 반일(半日)단위를 계산하고 있거나 처벌하는

8) 于振波, 「秦律中的甲盾比價及相關問題」, 『史學月刊』 2010-9, p. 38.

9) 반면 張家山漢簡 『二年律令』 行書律에는 “규정에 만나절 맞추지 못하면 태 50대, 만나절에서 하루까지는 태 100대, 하루를 넘기면 벌금 2량”이라는 규정도 있는데, 이는 시간과 처벌강도가 비례되어 반드시 가중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규정은 문서행정에서 극도의 시간의 엄밀성을 추구한 흔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郵)의 업무를 담당하던 관대부(官大夫) 내(內)가 문서를 8일 동안 전송하지 않아 심의대상이 되었던 『주언서』(奏讞書)의 사례는¹⁰⁾ 물론 문서위조죄도 추가되기도 했지만,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면 매우 엄중한 범죄로 처벌되었을 것이다.

이상의 몇 사례는 전체 문서행정시스템의 일부에 불과하겠지만 문서 전달에서 분단위의 시간까지 계산되었다는 사실, 만나질 이상 전달이 늦어졌을 경우 처벌되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문서행정에서의 규정시간의 엄수 및 시간의 신속성을 가장 중시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의 표준단위가 1일보다 작은 단위로 반일, 1/3일 심지어는 시와 분까지로 세분화되어 감독 통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¹¹⁾

한편 관리의 근무규정 역시 시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적지 않은 자료들이 남아 있어 시간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다음 자료를 살펴보자.

- ⑦ 계유일 1일 1야 근무하게 되어 돈과 재물을 저장한 건물의 문호를 엄격하게 살폈는데 그 봉합이 완전하였고, 도적이 개봉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평단[아침]에 영사에게 보고하였습니다 (癸酉直符一日一夜 謹行視錢財物藏 內戶封皆完 毋盜賊發者 既日平旦付令史. 『居延新簡』 E.P.T65:398).

위 기사들에는 평단(平旦)이라는 시칭이 나타나는데, 야간 근무자가 다음날 아침 평단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아마도 평단이 야간근무와

10) “河東守讞 郵人官大夫內留書八日 詐更其檄書辟留 疑罪”(『張家山漢墓竹簡』 奏讞書 案例 12).

11) 李成珪, 『秦漢帝國의 計時行政』 (近刊).

주간근무의 교대시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평단이 어느 시대에 서나 항상 하루의 개시시간이었는지는 불명확하다. 평단 이외에도 계명(鷄鳴)과 야반(夜半) 등이 역법(曆法)의 변동에 따라 하루의 개시시간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 같고, 평단은 하력(夏曆)을 사용하던 시기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무제기 태초력(太初曆)의 개력 이후에는 신시(晨時)가 하루의 시작점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고 본다.¹²⁾ 이 밖에도 근무과정에서 병이나 휴가, 근무지 이탈은 물론 출장 등을 계산하여 봉록과 맞추는 사례 등이 자주 등장하며 하루의 근무를 반일 혹은 1/3일씩 세분하여 계산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된다. 관리들의 이동이나 근무시간이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¹³⁾

문서행정상에 등장하는 시칭을 포함하여 당시의 시칭으로 추정되는 명칭을 <표 1>로 작성하여 정리하였다. 이들 시칭으로 당시 시간분할의 세밀화가 문서행정의 정밀성을 높였음을 짐작케 하지만, 이들 시칭을 분석해보면 반드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

1) 12시제의 명칭(李天虹(2012), pp. 290-296에 의거)

12지지	운몽진간 『일서』	영창수천자한묘 『일서』 (永昌水泉子漢墓 『日書』)	공가파 『일서』 (孔家坡 『日書』)	『논형』	둔황당사본유서 (敦煌唐寫本遺書)
축(丑)	계명(鷄鳴)	계명(鷄鳴)	계명(鷄鳴)	계명(鷄鳴)	계명(鷄鳴)
인(寅)	평단(平旦)	평단(平旦)	평단(平旦)	평단(平旦)	평단(平旦)

12) 宋會群 李振宏, 『秦漢時制研究』, 『歷史研究』 1993-6, pp. 10-11.

13) 이 문제에 관해서는 李成珪, 『秦漢帝國의 計時行政』(근간) 제4장 『시간표에 따른 복무』에 상세하기 설명되어 있다.

12지지	윤몽진간 『일서』	영창수천자한묘 『일서』 (永昌水泉子漢墓 『日書』)	공가파 『일서』 (孔家坡 『日書』)	『논형』	돈황당사본유서 (敦煌唐寫本遺書)
묘(卯)	일출(日出)	일출(日出)	일출(日出)	일출(日出)	일출(日出)
진(辰)	식시(食時)	식시(食時)	잠식(蠶食)	식시(食時)	식시(食時)
사(巳)	모식(暮食)	우중(隅中)	막식(莫食)	우중(隅中)	우중(隅中)
오(午)	일중(日中)	일중(日中)		일중(日中)	정남(正南)
미(未)	일질(日昝)	일질(日昝)	일실(日失)	일질(日昝)	일측(日昃)
신(申)	하시(下市)	모포(暮舖)	□시(□市)	포시(哺市)	포시(哺市)
유(酉)	용일(春日)	일입(日入)	막시(莫市)	일입(日入)	일입(日入)
술(戌)	우양입 (牛羊入)	혼시(昏時)		황혼(黃昏)	황혼(黃昏)
해(亥)	황혼(黃昏)	인정(人定)	황혼(黃昏)	인정(人定)	인정(人定)
자(子)	인정(人定)	야반(夜半)	인정(人定)	야반(夜半)	야반(夜半)

2) 16시제의 명칭

12간지와 괘(卦) ¹⁴⁾	『회남자』	방마탄진간일서, 생자편 (放馬灘秦簡日書, 生子篇)	『거연한간』 분석, 상민걸 (『居延漢簡』 分析, 尙民杰) ¹⁵⁾	송회군 이진굉 (宋會群 李振宏) ¹⁶⁾	『현천치한간』, 장덕방 (『懸泉置漢簡』, 張德芳) ¹⁷⁾
축	일출(日出)	계명(鷄鳴)	계명	신시(晨時)	신시
간(艮)	신명(晨明)	평단(平旦)	평단	평단	평단

14) 16시간제와 지지나 괘의 배당은 현재로서 확인할 수 없지만, 24시간제가 12地支와 戊 己를 뺀 8天干, 巽坤乾艮의 4괘로 배당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晉書』 律曆志) 12지지와 4괘로 배당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15) 尙民杰, 「居延漢簡時制問題探討」, 『文物』 1999-11.

16) 宋會群 李振宏, 「秦漢時制研究」, 『歷史研究』 1993-6.

17) 張德芳, 「懸泉漢簡中若干“時稱”問題的資料」, 『出土文獻研究』 6, 2004.

12간지와 괘(卦)	『회남자』	방마탄진간일서, 생자편 (放馬灘秦簡日書, 生子篇)	『거연한간』 분석, 상민걸 (『居延漢簡』 分析, 尙民杰)	송회군 이진평 (宋會群 李振宏)	『현천치한간』, 장덕방 (『懸泉置漢簡』, 張德芳)
인	비명(朏明)	일출(日出)	일출	일출	일출
묘	단명(旦明)	숙식(夙食)	잠식	잠식	잠식(蠶食)
진	잠식(蠶食)	모식(暮食)	식시	식시	식시(食時)
손(巽)	안식(晏食)	일중(日中)	동중(東中)	일중	일미중
사	우중(隅中)	일과중(日過中)	일중(日中)	포시	일중
오	정중(正中)	일칙(日則, 昃)	서중(西中)	하포	일실(日失)
미	소환(小還)	일하칙(日下則)	포시(餽時)	일입	포시
곤(坤)	포시(餽時)	일미입(日未入)	하포(下餽)	혼시	하포
신	대환(大還)	일입(日入)	일입	야식	일입
유	고용(高春)	혼(昏)	혼시(昏時)	인정	혼시
술	하용(下春)	야모(夜暮)	야식(夜食)	야소반	야식(夜食)
건(乾)	현거(懸車)	야미중(夜未中)	인정(人定)	야반	인정
해	황혼(黃昏)	야중(夜中)	야반	야대반	야반
자	정혼(定昏)	야과중(夜過中)	야과반(夜過半)	계명	계명

3) 32시제의 명칭 (懸泉漢簡)(VI92DXT1222②; 19)

평단(平旦), 일출(日出), 이간(二干), 잠식(蠶食), 식시(食時), 식좌(食坐), 일미중(日未中), 일중(日中), 일실(日失), 잠포(蠶餽), 포시(餽時), 포좌(餽坐), 하포(下餽), 석시(夕時), 일미입(日未入), 일입(日入), 혼시(昏時), 정혼(定昏), 야식(夜食), 인정(人定), 기소반(幾少半), 야소반(夜少半), 야과소반(夜過少半), 야기반(夜幾半), 야반(夜半), 과반(過半), 야대반(夜大半), 대신(大晨), 계전명(鷄前鳴), 중명(中鳴), 후명(後鳴), 기단(幾旦)

① 지역별로 통용되는 시간의 단위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잠포나 잠식

등은 양잠과 관련된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시간의 명칭일 가능성이 크고, 점차 전 중국으로 퍼졌을 수 있지만, 양잠을 하지 않는다면 이 시칭을 활용하기는 매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시제가 통일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시칭도 통일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자료에 보이는 다양한 시칭은 아마 시대의 차이도 고려해야 하지만 지역별 차이로 인정해도 좋을지 모른다. 특히 일출(日出)이나 일입(日入) 등도 계절에 따른 차이도 있지만 당연히 지역적 차이도 있고 이에 따른 닭의 우는 시간 즉 계명도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차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료가 갖는 지역성을 고려할 때 비로소 어떤 시칭이든 그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술한 문서수발의 사례들은 한정된 지역 내의 문서행정으로 추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② 시간단위가 특정한 시점이 아니라 일정한 폭을 갖는 형식이라는 점이다. 즉 일정한 점이 아니라 범위이며 현재의 시칭처럼 특정한 시점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떤 시제를 쓰던지 간에 이 시칭들은 어느 시점에서 또 다른 시점까지를 의미하는 범주를 지칭한다. 더구나 시간분할이 균등분할이 아닌 불균등분할로 시칭단위와 단위사이의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즉 등간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대의 시간이 균등분할로 이루어진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문서행정의 엄밀성을 현대적 관념으로 이해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시간엄수에 일정한 융통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③ 시간분할에서 중요한 지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태양의 출몰(日出, 二干, 日未中, 日中, 日失, 日未入, 日入)이다. 여기에서 일실(日失)은 태양이 서쪽으로 치우친 일단의 시간을 의미하고 일미중(日未中)과 대칭점을 이루게 된다. (㉡) 식사시간(蠶食, 食時, 食坐, 蠶舖, 舖時, 舖坐, 下舖, 夕時, 夜食), (㉢) 밤의 진행정도(夜少半, 夜過少半, 夜幾半, 夜半, 過半, 夜大半), (㉣) 닭의 울음소리(鷄前鳴, 中鳴, 後鳴), (㉤) 황혼의 정

도(昏時, 定昏) 등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태양의 상태가 시간을 알아내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었지만, 일상의 기본적인 일과인 아침과 저녁의 식사시간 및 야식이 이른바 배고픔으로 인지할 수 있는 시칭이었다는 점과 누에가 먹는 시간, 닭의 울음소리 등 징후로 시간을 인지한다는 점에서 천문과 물후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문서행정의 시간이 자연리듬과 규율에서 완전히 벗어나 객관화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물론 태양이 천공상(天空上)에서 가장 정중앙에 있을 때인 일중(日中)을 3단계로 나눈 그 앞뒤의 일미중, 일실 등은 객관화 논리화된 시간의 흔적도 있다. 32시제에서 계명(鷄鳴)과 관련된 계전명(鷄前鳴), 중명(中鳴), 후명(後鳴)은 계명을 논리적으로 3분한 것 같은 인상이 든다. 특히 야간의 시간분할은 밤의 진행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고려했다기 보다는 논리를 고려한 시간분할일 가능성이 크다. 12시제의 경우 밤의 시칭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16시제나 32시제의 경우 밤은 야반을 기준으로 전후 3단계로 나눈 논리성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시칭을 너무 많게 보이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칭으로 보지 않는 견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문서수발 등의 엄격한 시각을 강조한 측면 이외에도 시간활용에서 오행사상의 영향을 엿볼 수 있는 증거도 있다. 『할관자』(鷓冠子)에서는 행정조직을 리(里), 편(扁), 향(鄉), 현(縣), 군(郡), 주국(柱國)의 6단계로 나누고, 각기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마감시한을 최초 5일에서 5의 배수로 늘려 최종적으로 계국에서 천자까지는 60일이 걸리는 체제를 말하고 있다.¹⁸⁾ 실제 실행되었다기보다는 이념에 불과할 수 있지만, 오행으로 인식된 자연규율과 사회질서를 부합시키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18) 『鷓冠子』(四部備要本)「王鈇」第9 “故家里用提 扁長用旬 鄉師用節 縣齋夫用月 郡大夫用氣分所至 柱國用六律 里五日報扁 扁十日報鄉 鄉十五日報縣 縣三十日報郡 郡四十五日報柱國 柱國六十日以聞天子”.

마지막으로 연말 각 지방에서 상급기관에 일년간의 호구간전(戶口墾田)의 수, 전곡(錢穀) 입출상황 도적의 다소 등을 집계하여 보고하는 상계(上計)문서는 계단(計斷) 즉, 통계를 마감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였다. 10월이 세수(歲首)인 진(秦)에서는 9월이 한해를 마감하는 이른바 세종(歲終)에 해당되었는데, 한초(漢初)에서도 여전히 이를 계승하였다. 그러나 태초개력(太初改曆) 이후 정월이 세수로 되었지만 이 규정은 변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는 후술할 원회의(元會儀)에 상계리(上計吏)들이 참석하여 신년초에 황제에게 보고를 마치기 위해서는 그 통계를 마감하고 문서를 작성하며 경사로 올라갈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¹⁹⁾ 시간에서 마감을 중시했던 사례이다.

3. 농사활동과 시간

농민의 하루의 일과는 “해뜨면 나가 일하고 해지면 들어와 쉬는” 가장 초보적인 일상생활의 시간관념을 보여주고 있지만, 농사의 주기는 하루보다는 일년이 기본이기 때문에 계절과 절기(節氣)가 시간단위에서 가장 중요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물론 때로는 계절에 따른 활동을 담은 시령(時令)보다도 월별 활동에 중점을 둔 월령(月令)이 강조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계절은 농사활동에서 참고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시간이었다.

사시(四時)라는 것은 봄에는 (만물이) 탄생하고 여름에는 성장하며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에는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주고 받는 것에 절기가 있고 나가고 들어오는 데에도 시기가 있다. 열고 닫고

19) 高恒, 『漢代上計制度論考, 兼評尹灣漢墓木牘“集簿”』, 『簡牘研究』 1999-1, p. 78.

(일을) 벌리고 거두어 들이는 것은 그 순서를 잃지 않으며, 희노(喜怒哀)와 강유(剛柔)는 그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²⁰⁾

이 기사는 확실히 사계절이 경작 및 수확의 시간을 표시함을 알려준다. 농사는 반복되는 자연계의 규율에 순응하며 씨 뿌리고 거두는 것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키는 것이다. 사시와 농사활동의 순환적 성격이 동질적이라는 것을 확인시킨다. 그러나 정확한 계절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별자리나 기후 및 물후 등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별자리에 관심을 갖는 것은 시간이 기본적으로 지구의 자전, 달의 변화 등 천체활동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지만, 기온과 날씨 풍속 등 기후의 변동이나 동식물의 움직임으로 표시되는 물후의 변화도 계절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였음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거시적으로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면서도 1년을 좀 더 세분화한 단위로써 월령이나 절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월령을 기록한 문헌들에 별자리 및 물후를 포함하여 천자의 활동 세시제사(歲時祭祀) 등을 포함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월령은 정령(政令)의 형태로 농민들이 그 달에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등을 알리고 지도하고자 한 것으로, 고대사회 농업생산의 세밀한 계획표로서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예기』 「월령」이나 『여씨춘추』 12기 등을 참고한 고대 월별 농업생산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¹⁾ 맹춘(孟春)은 1년 농사활동의 시작으로 군주가 농사일을 선포하면 토지의 경계를 정돈하고 밭사이의 길을 바로잡으며 토지에 따라 적합한 오곡을 살핀다. 동시에 산림에서는 나무의 벌채를 금지하며 어린 짐

20) 『淮南鴻烈集解』 卷8, 本經訓 “四時者 春生夏長 秋收冬藏 取予有節 出入有時 開闢張歛 不失其叙 喜怒哀剛柔 不離其理”.

21) 이하 맹춘에서 계동까지의 활동에 관해서는 정하현 역, 『여씨춘추』, 소명출판, 2011과 孫希旦 撰, 『禮記集釋』, 中華書局, 1989를 참고하였다.

승이나 새끼를 뺀 날짐승을 죽이지 못하게 한다. 중춘(仲春)은 농작물의 생산초기로 잠깐 틈을 내어 문짝을 수선하며 칩전과 사당도 수리한다. 계춘(季春)은 살아 있는 것들이 다 나오고 싹트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농작물의 성장시기로 부녀자들에게 양잠을 독려하며 수말과 수소들이 암컷과 교접하게 한다. 맹하(孟夏)는 양잠이 끝나는 시기로 경작지와 둔덕을 둘러보고 농민들이 경작에 힘쓰도록 독려하며 짐승을 쫓아내서 오곡에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농민이 때를 잃지 않도록 한다. 중하(仲夏)는 곡식이 익기를 기원하는 시기로 임신한 암말을 무리에서 떼어 놓고 망아지는 고삐를 매어 길들인다. 계하(季夏)는 잡초들을 태운 뒤 물을 대어 토지를 비옥하게 하여 작물의 성장을 돕는다. 갈대를 베거나 풀을 모으고 옷감을 물들이는 때도 이 시기이다. 나무가 무성할 때이므로 산림에 들어가 누구도 벌채하지 못하게 한다. 맹추(孟秋)는 수확이 시작되는 달로 농민은 햇곡식을 바치며 부세(賦稅)를 내야 한다. 제방을 손질하여 홍수에 대비하며 궁실 담장을 고치고 성곽을 보수하는 시기도 바로 이때이다. 중추(仲秋)는 수확하고 저장하는 달로 한편 보리를 심고 채소를 갈무리하며, 움을 파고 곳간을 수리한다. 계추(季秋)는 농사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기로 수확이 끝나면 수확량을 장부로 보고하며 창고에 저장한다. 백공(百工)이나 농민은 휴식에 들어가지만, 천자는 사냥을 통해 군사훈련을 한다. 장작을 베어 숯을 만드는 시기이기도 하다. 맹동(孟冬)은 1년 농사활공을 마무리하며 내년의 농사활동을 예측하는 점을 치기도 한다. 관에서는 성곽을 높여 문을 단속하고 빗장을 수리하며 요새를 보수하고 관문과 교량을 점검한다. 농민은 휴식하지만 산림수택의 부세를 내는 시기이기도 하다. 중동(仲冬)은 산림수택에서 거친 먹을 거리를 구하기도 하고 금수를 사냥하기도 한다. 나무를 벌채하고 화살만들 대나무 등을 벨 수 있다. 계동(季冬)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지만, 농민들은 오곡의 종자를 선별하며 농기구를 수선하고 준비하여 다음 해의 농사에 대비

해야 한다.

이러한 월령의 농사활동 관련 내용은 후한대 『사민월령』(四民月令)에 이르러서는 더욱 세밀해진다. 각종 작물의 파종과 경작 수확을 다루는 농업생산 이외에도 양잠 방직 농산품의 저장 가공 매매 등등까지 포함하고 있어 매우 광범위하다.²²⁾ 구체적 내용을 보면 1월에는 농사활동을 준비하면서 2월까지 봄보리와 비두(蠶豆)를 심고, 2월에는 화(禾), 대두(大豆), 저마(苴麻), 호마(胡麻)를 심으며, 3월에 살구꽃이 피면 밭을 일구고 때맞춰 비가 내리면 메벼[강도, 稭稻] 및 화, 저마, 호두(胡豆), 호마를 심는다. 4월에는 누에를 기르며 화, 대소두, 호마를 심는다. 5월에도 호마를 심지만 화와 모마(牡麻)도 심는다. 6, 7월에 보리밭을 갈며 8월에는 밀과 보리를 심고, 9월에는 창고와 곳간을 수리한다. 10월에 곡물을 수확하고 11월에 대나무 등을 벌목하며 12월에는 소를 키우며 내년 농사를 준비한다. 이와 함께 농산품의 매매도 하는데 3월에는 딸감을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지만 5월부터 11월까지의 각종 생산물을 매매하기도 한다. 절기와 함께 구체적인 일(日)까지 명기된 경우도 있다. 예컨대 청명절에는 잠첩(蠶妾)에게 잠실을 수리하도록 한다든지, 8월 추분후 10일에 미전(美田)에 종자를 뿌린다고든지 등등이 그것이다.²³⁾ 농사의 시간이 일까지 세분화된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일보다는 월이 중시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데, 이런 가운데 절기에 대한 비중이 강화되고 있다. 사실 이전 월령에 등장하는 절기가 주로 황제나 관료의 활동을 다루고 있어 농민의 농업생산과 연계가 적었다면, 『사민월령』에서는 절기와 농사활동이 더욱 밀접해지고 있다. 절기가 갖는 농업생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24절기에 포함된 8절과 기후, 물후 및 풍기, 농시(農時)

22) 樊志民 朱宏斌, 『月令書與中國傳統農業管理思想之嬗變』, 『中國農史』 2002-3, p. 102.

23) 石聲漢, 『四民月令校注』, 中華書局, 1965 참조.

의 명칭들은 계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절기의 구분은 계절과 월이라는 시간단위를 더욱 세분화한 것이고, 농시의 예고나 농사의 표준제시라는 측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월령서들에서 절기명칭과 등장하는 많은 내용이 경작의 시작, 농로와 도랑의 수리, 농토의 정리, 파종, 수확 등 농사와 관련된 내용이 적지 않으며 절기는 직접적으로 농사활동의 표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²⁴⁾ 특히 고대 농서(農書)들에 동지나 하지를 기산일로 하여 특정한 농사활동을 예고하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도,²⁵⁾ 이러한 절기의 용도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24절기를 농사활동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다.

물론 『여씨춘추』 12기는 농사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제사, 전쟁, 구휼, 산림수택의 관리 등등 민간통치에 관련된 사항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관자』(管子) 유관(幼官)편의 30시절(時節)도 그 시행의 주체가 군주로 되어 있어 일반 농민들이 직접 생활상에서 실행할 시령은 아니다. 더구나 본래 2分2至(춘분 추분 하지 동지)의 성립은 지구의 공전활동에 따른 계절의 기준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본래 1회귀년을 균등하게 등분한다는 천문학적 관념을 포함한 역법(曆法) 본래의 수요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24절기의 성립을 농사활동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는데 비판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²⁶⁾ 24절기와 별도로 존재했던 은작산한간의 “30시”는 농사활동의 표준으로서 보다 오히려 점술적(占術的) 필요성이 강했다는 점은 이미 필자가 논증한 바 있다.²⁷⁾ 24절기와 30시절

24) 崔德卿, 「中國古代的 物候와 農時豫告」, 『中國史研究』 18, 2002. 5. pp. 19-32.

25) “冬至後五旬七日 于是始耕”(『呂氏春秋』土容論 任地); “夏至先後各二日 可種麥” “夏至先後各五日 可種牡麻”. “夏至後二十日前 可別稻及藍(以上『四民月令』五月) 특히 실용적 농사력의 성격을 갖는 『四民月令』은 24절기의 명칭과 함께 각종 농사활동이 배당되어 있다.

26) 馮時, 『中國天文考古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 pp. 256-257; 江曉原, 鈕衛星 著, 『中國天學史』, 上海人民出版社, 2005, pp. 122-123.

27) 卒考, 「節氣와 중국 고대인의 생활, 銀雀山漢簡의 “30時”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이라는 두 계통의 절기가 공존한 것은 기후와 물후의 지역적 차이일 수도 있고, 사용하던 역법의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다고 추정했지만, 30시절은 사계절에 균등하게 배합할 수 없는 부정합성의 요인 등으로 결국은 쇠퇴했던 것이다. 그러나 24절기와 마찬가지로 30시절을 농사와 완전히 부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30시절의 명칭 중에는 24절기에 들어있는 농사에 관한 명칭 예컨대 곡우(穀雨)와 망종(芒種)같은 용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에 해당되는 8개의 시절에는 “봄에 할 일을 경계하며(戒春事), 경작을 시작하며(出耕), 문호를 수리하고(修門閭), 금지해야 하는 행동을 발표하며(發禁), 남녀의 결혼(合男女)” 등의 행사를 하며, 여름의 7개 시절에는 “작과 상을 내리고(下爵賞), 거두어 들이며(收聚), 선행을 쌓음(盡善)”을, 가을의 8개 시절에는 “가을에 할 일을 경계하고(戒秋事), 거두어 들이며(收聚), 부세를 거두며(賦事), 남녀의 결혼(合男女)” 등을, 겨울의 7개 시절에는 “형벌을 다하며(盡刑), 사여(賜與), 거두어 들임(收聚) 크게 거둠(大收)” 등의 행사나 활동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⁸⁾ 이들 행사 중에 지기발(地氣發)의 계춘사(戒春事)나 소묘(小卯)의 출경(出耕)은 봄의 농경의 시작을 대비와 경작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므로 직접적으로 농경과 상관되며, 기풍지(期風至)의 활동인 계추사(戒秋事)도 추수를 준비하라는 의미이므로 농경의 일환임이 분명하다. 절기호칭 자체는 농시(農時)를 예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상 농경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관(幼官)을 현궁(玄宮) 즉 명당(明堂)이라고 해석하고 있듯이²⁹⁾ 이 내용들은 일반농민을 위한 농시의 예고는 아니며, 사여 수취 등과 같이 군주가 각 계절에 마땅히 행해야 할 일종의 정령인 것이다. 각

107집, 2008 참조.

28) 『管子』 卷3, 幼官, pp. 147-157.

29) 胡家聰, 『管子新探』,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p. 230; 金谷治, 『管子的研究—中國古代思想史の一面』, 岩波書店, 1987, p. 233.

계절이 갖는 구체적인 자연리듬과 규율을 정치와 일상생활 전반에 응용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단순히 농사만의 표준을 제시하고자 한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월령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기에 맞지 않을 경우를 의미하는 불시(不時)를 강조하고 있지만, 유관편(幼官篇)에는 각각의 계절에 맞지 않는 정령을 시행할 경우 어떠한 재앙이 초래하는지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³⁰⁾ 사마담(司馬談)이 음양가를 설명하면서 “사계절, 팔괘의 위치, 12차, 24절기에는 각기 따라야 할 교령(敎令)이 있다”³¹⁾고 소개한 것도 절기가 갖는 이러한 시령적 지배의 한 성격을 드러낸 것이었다.

이러한 점은 특히 각 절기에 실행하는 여러 행사들을 살펴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예컨대 24절기 중 후대까지 지속된 절일(節日)로서 정착된 동지를 살펴보자. 음기의 극성기로서 음양의 교대점에 해당되는 동지에는 해그림자를 측정하는 등 황제의 시간에 대한 지배권을 상징하는 원초적인 관행이 오래 지속되었고, 특히 동지전후 황제와 조정은 일체의 정무를 쉬고 휴식하면서³²⁾ 혹은 불을 바꾸거나 단옥(斷獄)을 끝내는 등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하였지만, 제천의식도 그 일환으로 실행되었다.³³⁾ 음양의 교대라는 측면에서 하지 역시 강조되었지만, 사계절의 시작으로서 입춘 역시 교외에서 영기행사를 행한다. 물론 민간에서도 10월부터 동지절을 위해 겨울술을 양조하기도 했고,³⁴⁾ 동지의 신인 현명(玄

30) 『管子』卷3, 幼官 “春行冬政肅 行秋政霜 行夏政闢”, “夏行春政風 行冬政落 重則雨雹 行秋政水”, “秋行夏政葉 行春政華 行冬政秬”, “冬行秋政霧 行夏政雷 行春政沍泄”

31) 『史記』卷130, 「太史公自序」中 六家要旨, “陰陽四時 八位 十二度 二十四節 各有敎令”.

32) 『後漢書』卷 15, 「禮儀志」中, “冬至前後 君子安身靜休 百官絕事 不聽政 擇吉辰而後省事”

33) 『周禮』卷6, 春官宗伯下 “冬日至 於地上之圜丘奏之 若樂六變 則天神皆降 可得而禮矣”

冥)과 조상을 제사지내는 등 매우 융중한 행사를 준비하였다. 하지 역시 정월부터 하지와 초복제사에 쓸 봄술을 양조하고 조상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은 동지와 매우 유사하였다.³⁵⁾

이렇게 볼 때 절기는 공동체의 결속감을 다지면서 일원적으로 국가의 지배를 확립하는 수단이었으며, 새로운 시작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여 통치기반을 확고히 하는 측면이 있었다. 반면 민간에서는 단조로운 일상생활 속에서 새로운 활력과 리듬을 갖는 시간이기도 했을 것이다. 월령이나 절기를 자연시간이나 농사시간 이외 문화적 시간으로 평가하면서 자연시간의 정치화를 통해 시간과 정치를 일체화시켰다고 본 것도³⁶⁾ 이 때문이다.

물론 일부 절기는 절일로 기능하면서 황제의 일원적 지배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기능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띤 형태로 등장했다. 초기 농사력으로서의 원초적 시령이 점차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항을 갖추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법령화되었던 것이다. 둔황현천치(敦煌懸泉置)에서 출토된 『사민월령조조』(四民月令詔條)는 월령이 현실정치에 응용되었던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맹춘에 벌목을 하지마라, 새 동지를 들어내지 마라” 등등 “……을 하지 마라”식의 금지조항이 태반이어서 적극적으로 시간에 맞추어 어떤 활동을 행하는 내용을 기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시령의 형해화 과정속에서 실제 얼마나 적용되었을 것인가 의문도 있다.³⁷⁾ 그러나 계절을 세분화한 월령과 절기의 활용은

34) 『四民月令』十月條, “上辛 命典饋瀆糶 麴澤 釀冬酒 必躬親潔敬 以供冬至 臘 正祖薦韭卵之祠”

35) 彭衛 楊振紅, 『中國風俗通史(秦漢卷)』, 上海文藝出版社, 2002, p. 635. 특히 『居延漢簡』에는 改火이외에도 병사활동의 정지, 우물물을 퍼서 새 물로의 교환, 鷄鳴때의 출입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甲編 91, 10.27).

36) 傅道彬, 『“月令”模式的時間意義與思想意義』, 『北方論叢』2009-3, p. 129.

37) 中國文物研究所 編, 『敦煌懸泉置月令詔條』(中華書局, 2001) 附錄 『敦煌懸泉置出土 “四民月令詔條”研究』.

자연적 시간과 인간의 정치적 시간을 조화 합치시키려는 고대제국 통치자들의 일련의 노력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하튼 농사활동에서는 사계절, 월령, 절기를 활용함으로써 문서행정에서 보이는 시간의 속도와 시간활용의 효율성보다는 자연법의 체현을 통한 자연시간과 생활의 조화를 보다 더 중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이다.

4. 제사 및 각종 의례시간

고대사회에서 제사와 의례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였다는 사실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제사는 황제의 경우 천지와 산천의 각종 신에 대한 다양한 제사뿐만 아니라 종묘제사 등 수많은 제사가 시행되었고, 제사의례 외의 즉위식이나 혼례 등 각종 의례 중에는 매년 정월 초하루 시작을 강조하는 원회의(元會禮)가 시행되는 등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갖는 행사들이 존재하였다. 제사의례를 살펴보면 우선 계절에 따른 제사와 연차에 의한 제사가 구분되어 있다. 교사제(郊祀祭) 등 계절에 따라 방위와 장소를 달리하여 제사를 지내야 하는 대상도 있었지만, 약사증상(禴祀烝嘗)이라 하여 각 계절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는 제사도 시행된 것을 보면 각종 신격에 대한 제사에서 계절이라는 시간적 요소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농사활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사와 의례에서도 계절은 활동의 이론적 기반이었다. 군자의 하루에도 사계절이 있다고 하면서 아침에는 정치에 참여하고 낮에는 방문하며 저녁에는 영(令)을 익히며 밤에는 몸을 편히 한다는 언급은³⁸⁾ 사계절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군자의 자기완성을 위한 일종의 주기단위로 인생 전체에 적용되는 생활과 의례의 기준이어야 함을 주장한 것이

38) 『春秋左氏傳』昭公 元年條 “君子有四時 朝以聽政 晝以訪問 夕以修令 夜以安身”

다. 사계절은 자연의 주기일 뿐만 아니라 생산의 주기이며 인생의 주기임을 환기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반고(班固)는 한문제(漢文帝)가 <사시무>(四時舞)를 창작한 목적도 천하의 안정과 화합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했던 것이다.³⁹⁾

그런데 제사의례에서의 계절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오행설, 천인상응설(天人相應說) 등의 사상과 결합하면서 공간과도 연계되었다. 계절과 연계된 동서남북과 중앙이라는 오방(五方)이 설정되면서 각종 계절 제사는 필연적으로 방위와 상관되었고 나아가 오행, 색깔, 신격, 음식, 악기, 물후 등과도 결부되면서 제사의례의 형식과 내용을 규제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매달 첫 번째 신일(辛日) 즉 상신일(上辛日)을 선택한다든지 하여 단위시간으로서의 일(日)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고, 하루 중의 시각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다. 다음 기사들을 살펴보자.

- ① 정월 하늘의 제사에 바치는 석생(夕牲)은 주루(晝漏)가 다하기 전 18각에 처음 바치고 야루(夜漏)가 다하기 전 8각에 처음 바친다. 명당(明堂), 오교(五郊), 종묘, 대사직(大社稷), 육종(六宗)의 석생은 모두 주루가 다하기 전 14각에 처음 바치고 야루가 다하기 전 7각에 처음 바친다(『後漢書』禮儀志).
- ② 황제가 종묘 제사에 가면 야반(夜半)에 들어가 예를 행하고 평명(平明)에 술 9잔을 올린다(『漢舊儀』卷下).
- ③ 22년 신묘일(辛卯日) 새벽[晨]에 태산 아래 남쪽에서 하늘에 요계를 지내고 …… 식시(食時)에 이르러 산에 오르기 시작하여 일중(日中)이 지난 뒤 산꼭대기에 다다라 옷을 갈아입고 조포(早晡)시에 단에서 즉위하였다(『後漢書』祭祀志).

39) 『漢書』卷 21, 禮樂志 “四時舞者, 孝文所作, 以(明)示天下之安和也”

- ④ 정월 상순의 신일(辛日)에 감천(甘泉)의 원구에서 태일(太一)을 제사지낼 때 70여 명의 동남동녀들이 황혼 때부터 날이 밝아올 때까지 일제히 합창하게 하였다. 밤늦게 항상 신명의 광채가 나오는 것이 유성이 제단의 위에 모이는 것 같았다(『漢書』禮樂志).
- ⑤ 맹추의 달에 천자는 동교(東郊)에서 봄을 맞이하고, 맹하의 달에 천자는 남교(南郊)에서 여름을 맞이한다. 맹추의 달에 천자는 서교(西郊)에서 가을을 맞이하고, 맹동의 달에 천자는 북교(北郊)에서 겨울을 맞이한다(『禮記』月令).

위 기사 중 ①과 ②는 각종 제사의례에서 월일뿐만 아니라 하루의 시각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세세하게 제사의 절차를 규정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으며,⁴⁰⁾ ③의 기사는 태산(泰山)에 오르는 주요 일정이 자세하게 시각으로 기록하였던 사실을 보여준다. 제사 자체가 일정한 시간표에 의해 통제되고 시행되었던 사정을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④는 신일(辛日)에 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하루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았어도 “황혼에서 날이 밝아올 때까지”라는 의미는 제사에서 음과 양이 교대되는 시간이 고려해야 할 의미 있는 시간임을 암시하고 있다. 제사활동이 시간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⑤는 오행설에 따라 오교에서 행하는 영기(迎氣) 행사를 말하고 있다. 사계절의 시작을 중시하여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대대적인 의례를 행하는 것이다. 이 역시 계절과 방위의 결합방식이 표현된 것이지만, 반복적으로 도래하는 계절의 주기성과 의식 및 춤 등을 통한 연출, 천과 인간의 소통을 주재하는 매개자로서의 왕의 상징성 등이 반영되어 있다.⁴¹⁾ 결국 오교영기의 목적은 계절에 순환에 따라 새롭게 시작되는 계절을 맞이한다는 의미가

40) 『後漢書』禮儀志에는 이런 종류의 기술이 적지 않다.

41) 張樹國, 「詩性時曆: “月令”與漢代祭祀詩關係探析」, 『杭州師範大學學報』2012-9, 2012, p. 73.

있어 시작점으로의 시간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연주하는 영기악(迎氣樂)으로 <청양>(靑陽), <주명>(朱明), <서호>(西顛), <현명>(玄明)의 4대악은 각기 4계절의 특징과 의미를 묘사한 것이다.

시간의 특정한 시점, 특히 시작점을 강조한 것은 제사의례 시간활용의 독특성을 잘 보여주는 측면인데, 오교의 교사의례(郊祀儀禮)도 그렇지만, 예컨대 일년의 시작을 강조했던 원회의례(元會儀禮)나 매월 초하루를 기념하는 곡삭례(告朔禮) 등도 이에 해당된다. “시”(時)라는 단어가 본래 “시”(始), 혹은 “시”(施) 등과 본래 발음이 같았고, 이것이 개시 혹은 발기(發起)를 의미하기 때문에 식물에서의 생명의 발아나 발동을 의미하는 상징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⁴²⁾ 시작점을 강조하는 의례는 시간의 원초적 성격을 잘 간파한 것임이 분명하다. 우선 원회의례는 일년의 시작이고 한 달의 시작이며 하루의 시작이라는 삼조(三朝)라는 의미를 갖는 원단(元旦)에 거행하는 국가의례이다. 한고조(漢高祖) 7년 10월 장락궁(長樂宮)이 완성되었을 때 거행된 원회의 예는 알자(謁者)가 날이 밝기 전에 이미 식장을 준비하고 의식참가자들 중 제후 공신 장군은 서쪽에 서서 동쪽을 바라보고, 승상 이하의 문관들은 동쪽에 서서 서쪽을 바라보면서 계단 양쪽에 도열한다. 황제가 도착하면 군신(群臣)들은 축하사를 바치고 황제를 향해 축배를 든다. 곧이어 의식은 향연으로 이어졌는데,⁴³⁾ 이것은 고대 원회의례의 기본적 진행이었다. 이러한 원회의례는 이후 더욱 정돈되었는데 다음 기사를 주목해 보자.

매 세수(歲首) 정월에 큰 조회를 열어 축하를 받는다. 그 의식은 다음과 같다. : 야루가 다하기 전 7각에 종이 울리면 축하를 받는다. 폐백을 드릴 때, 공과 후는 벽옥을, 중이천석(中二千石)과 이천석은

42) 詹冬華, 『中國古代三種基本的觀時方式; 切入古代時間意識的一個維度』, 『文史哲』 2008-1, p. 81.

43) 『漢書』 卷 43, 叔孫通傳.

어린 양을, 천석과 육백석은 기러기를, 사백석 이하는 꿩을 드린다. 백관은 정월에 조하(朝賀)한다. 2천석 이상은 전(殿)에 올라가 만세를 부른다. 어좌의 앞에서 잔을 높이 든다. 사공(司空)이 국을 올리고 대사농이 밥을 올리면 식거악(食舉樂)이 연주된다. 백관에게 하사품이 내리고 연회가 시작되면서 성대한 음악이 연주된다.⁴⁴⁾

원회의가 10월에 진행된 것은 이 달이 한고조가 진을 평정한 달이고, 곧 이 달을 한의 세수를 삼았음을 의미하므로 일년의 시작점을 강조한 것이 분명하다. 후한 이후의 원회의 때에는 만(蠻), 맥(獠), 호(胡), 강(羌) 등 주변 이민족도 조공했고 이들의 조공이 끝나면 군국(郡國)의 상계리(上計吏)들을 알현했다.⁴⁵⁾ 이러한 의식은 황제가 신하 및 지방, 주변국과의 종속관계를 재확인하고 권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⁴⁶⁾ 그런데 이 기사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야루미진7각”(夜漏未盡7刻)이라는 시간이다. 전술한 자료 ①에도 “주루미진18각”(晝漏未盡18刻) “야루미진8각”(夜漏未盡8刻) 등이 등장했지만, 물시계 누각(漏刻)의 시간계산법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 한대 일반적으로 주야를 합하여 하루를 100각으로 했다는 기록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 계절에 따른 주야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12혹은 16시간제의 시칭제와는 별도로 “주루 혹은 야루 상(하) 몇 각”이라는 형식의 구체적인 시간측정제도 병행했던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이 후에 96각제 혹은 108각제, 120각제 등으로 개정되었던 것은⁴⁷⁾ 12 혹은 16시제와 수리적으로 정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

44) 『後漢書』卷 5, 禮儀志 “每(月朔)歲首[正月], 爲大朝受賀. 其儀: 夜漏未盡七刻, 鍾鳴, 受賀. 及贊, 公·侯壁, 中二千石·二千石羔, 千石·六百石鴈, 四百石以下雉. 百官賀正月. 二千石以上上殿稱萬歲. 舉觴御坐前. 司空奉羹, 大司農奉飯, 奏食舉之樂. 百官受錫宴饗, 大作樂”.

45) 『後漢書』卷 5, 禮儀志 注引 蔡質 『漢儀』.

46) 張瑜, 『試論漢代“元會儀”所體現的音樂政治論思想』, 『交響: 西安音樂學院學報』 27-4, 2008, pp. 88-90.

이다. 여하튼 이 100각제는 1년간의 주야의 변동을 각으로 반영한 것인데, 동지에는 낮시간이 40누각, 밤시간은 60누각이며, 동지부터 대략 9일 간격으로 낮과 밤에 각각 1각씩 변동이 생기면 하지에는 반대로 낮시간이 60누각, 밤시간이 40누각이 된다. 춘분과 추분은 당연히 낮과 밤시간이 각각 50누각이 된다. 이때 만약 정월의 낮시간을 대략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로 본다면(40누각) 교제에서 석생을 시작하는 시간인 ‘주루가 다하기 전 18각’은 거의 낮 1시 전후로 추정되며, 팽인(烹人)에게 희생을 건네는 시간인 ‘아루가 다하기 전 7각’은 대략 새벽 5시-5시반 경으로 추정된다. 이 시간에 초납(初納)을 드린다는 것은 야루에서 주루로 교체되는 즉 주야의 교체시간에 본 제사를 진행시킨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낮의 시작 혹은 밤의 시작을 강조한 것이다. 원희의를 상릉(上陵)의 예로 변경한 후한 명제(明帝) 영평(永平) 17년(74년)의 상릉례는 “주루상수(晝漏上水) 즉 “주루에 물이 찰 때”의 시간에 “대홍려가 구빈(九賓)의 자리를 배정하고 순서대로 백관들을 침전(寢殿) 앞에 세우게 되는데”⁴⁸⁾ 이 기사에 언급된 “주루상수”는 대체로 일출시기로 새벽 6시가 다소 넘는 시간으로 알려져 있다.⁴⁹⁾ 바야흐로 낮이 시작되는 시점인 것이다.

한편 곡삭례(告朔禮)는 서주시기 한 달의 시작점인 매월 첫 날에 제후들이 천하에게서 받은 달력을 꺼내어 조묘(祖廟)에서 제사를 지내고 의식을 치르는 것으로 이후 삭정(朔政)을 행한다는 의미가 있다. 쟁점은 하안(何晏)이 주에 명기한 “조향”(朝享)이 곡삭(告朔) 시삭(視朔)이후 별도로 드리는 월제(月祭)인지, 곡삭의 일부분으로 그 의식 중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인데,⁵⁰⁾ 일단 이 문제는 차치한다면 노문공(魯文公)이 이

47) 陳久金, 『中國古代時制研究及其換算』, 『自然科學史研究』 2-2, 1983, p. 123.; 傅振倫, 『漢代計時方法』, 『文物春秋』 1990. 4, p. 36.

48) 『後漢書』 卷 4 『禮儀志』 禮儀上.

49) 李欣, 『東漢“上陵之禮”考述』, 『咸陽師範學院學報』 2012-9, p. 16.

50) 田家溧, 『告朔禮考』, 『華北水利水電學院學報』, 27-2, 2011.

예를 폐한 이후 진한시대에는 이 의례는 일시 단절된 것이 분명하지만, 시간의 시작점을 강조하는 시령을 통해 피지배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시간의 주재자로서의 천자의 권위를 강조하려는 곡식의 의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더불어 제사에서 상신일(上辛日) 같은 특정 일자를 강조하는 점도 시간관념의 이해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한 대 이래 정일(丁日)과 기일(己日)도 때로 사용하였지만 앞서 인용한 사료 ③과 ④처럼 신일(辛日)을 사용한 용례가 가장 많다.⁵¹⁾ 여기에서 상일(上日)을 초하루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⁵²⁾ 여기에서는 상순의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 상신일은 첫 번째 신일이 되는 것이다. 감천 태일제사를 정월 상신일에 지냈지만, 교사제(郊祀祭)에서도 12월 하신일(下辛日)에 점을 치고 정월 상신일에 제사지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⁵³⁾ 정월이 세수를 의미하고 신일은 재계(齋戒)와 자신(自新)의 의미를 갖는다는⁵⁴⁾ 점이 강조된 것이다. 특히 한 무제가 상신일에 상고이래의 제천활동을 계승한 이래로 진(晉) 태시(泰始) 2년(266년)에 곡식의 풍숙(豐熟)을 기원하는 원일기곡(元日祈穀)도 교제(郊制)에 포함시켜 정월 상신일에 거행하게 되면서 그 의미는 더욱 강화되었다.

한편 상장의례 같은 경우는 발생시점이라는 특별한 시간이 선택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실행기간의 장기성은 지속시간의 관념을 갖는다는 점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거상기간 즉 복(服)을 입는 기간 등이 신분에 따른 차등성은 중국 고대 의례시간관념의 중요한 한 특징이었다.

51) 『南齊書』禮志上 “漢魏以來 或丁或己 而用辛常多 考之典據 辛日爲允”.

52) 『史記』五帝本紀 『集解』引 馬融云 “上日 朔日也”.

53) 『春秋穀梁傳』 “十二月下辛卜, 正月上辛郊”; 『禮記』 「郊特牲」 “郊用辛 周之始郊日以至”.

54) 『禮記』 「郊特牲」 注 “正月 歲首, 上辛猶始新 皆取其首月之辛日者”.

5. 의학에서의 시간

의학에서의 시간활용은 질병 및 그 치료방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질병은 기(氣)의 소장관계(消長關係)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차도가 있고, 치료도 그러한 차도를 고려해야 하므로 시간의 요소가 의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서 하루의 시간을 오행이나 팔괘 배당에 따른 분류하는 시간의 5분류법 및 8분류법이 유행할 수밖에 없었다. 공적인 시제로서의 12 혹은 16시간제는 이 분야에서 그다지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지는 않다. 주지하다시피 약의 복용이나 침 치료에서 가장 중시되었던 사항은 역시 시간이었다. 현실적으로 주야의 교체, 계절의 변화 등이 인체의 생리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거의 상식에 가깝기 때문에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시간을 고려한다는 사실 자체는 별반 새로운 것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方士들에게 시간과 질병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였고, 그들이 주목한 것은 우선 하루 중의 시간이었다. 인체 내의 양기의 활동이 주야와 아침저녁으로 달라진다고 생각했던 방사적 경향의 의자(醫者)들에게 병의 상태도 1일의 시간의 변화에 따라 차등이 있다고 인식했다.

아침에는 사람의 기가 비로소 생기기 시작하므로 병기는 쇠약해져 혜(慧)라 부르고, 한낮에는 사람의 기가 생겨 장시간 사기(邪氣)를 이기고 있으므로 안(安)이라고 한다. 저녁에는 사람의 기가 쇠하고 사기는 생기기 시작하므로 가(加)라고 한다. 한밤에는 사람의 기가 오장에 들어가고 사기만 몸에 남으므로 심(甚)이라고 한다.⁵⁵⁾

55) 『黃帝內經靈樞』下冊(河北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95) 卷 7, 順氣一日分爲四時, p. 25.

이 기사는 하루를 4분하여 사람의 정기(正氣)와 병기(病氣)가 어떻게 소장(消長)하는지를 언급한 내용이다. 특별히 한낮에는 정기가, 한밤에는 사기가 성행하는 것으로 묘사된 것은 흥미로운데, 아마도 음양설의 영향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하루를 4분한 것은 계절에 빗맞기 때문인데 아침은 봄이고 낮은 여름이며 저녁은 가을이고 밤은 겨울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루의 등분도 계절의 순환이라는 자연의 질서에 순응한다는 관념을 보여주는 셈이다. 그런데 시간의 영향은 이처럼 단순하게 모든 질병에 적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질병의 종류에 따라 하루 중의 시간의 영향이 다르다는 인식도 존재했다. 예컨대, 간계통의 병은 아침이 혜의 상태, 하포(下哺), 신시(申時)에 심(甚), 한밤이 정(靜)이 되지만, 심장병계통은 한낮이 혜이고 한밤은 심, 아침은 정이 된다.⁵⁶⁾

〈표 2〉 시간에 따른 오장병의 변화

	평단(平旦)	일출(日出)	일중(日中)	일질(日晡)	하포(下哺)	사계(四季)	야반(夜半)
간장병	慧				甚		靜
심장병	靜		慧				甚
비장병		甚		慧	靜		
폐 병			甚		慧		靜
신장병					靜	甚	慧

동시에 질병은 계절과 특히 8절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였는데, 이 중 하지와 동지전후 시기는 음·양기의 전환시기로 인간 생리활동에의 영향이 가장 큰 시기였고, 동지 전후는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간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⁵⁷⁾ 이러한 예로부터 병의 종류와 시간의

56) 『黃帝內經素問』(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人民衛生出版社, 1995) 卷 7, 藏氣法時論, pp. 318-321.

장단이 서로 맞물려 영향을 준다는 관념이 당시 팽배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달의 차고 기우는 변화가 인체의 생리활동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신념은 매우 중요하였고, 복약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었다. 양생(養生)을 위해 실행하는 단식법의 일종인 벽곡(辟穀)을 할 때 석위(石韋)를 먹을 경우, 달의 원결에 맞게 그 양을 가감한다는 언급이 있다.⁵⁸⁾ 이것이 당시 의가의 여러 학파 중 황제파(黃帝派)의 한 분파인 소사파(少師派)의 논리라고는 하지만,⁵⁹⁾ 신체의 활동리듬과 달의 주기를 맞추어야 한다는 신념의 명확한 반영인 것은 분명하다. 인체의 구조가 천과 일치하므로 인체의 생리기능의 운행도 천지와 일치해야 한다는 논법인 것이다.

침구시술에서도 물론 혈기의 성쇠와 경맥 기의 출입 운행의 시간을 고려해야 했으므로 시간이 매우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침을 놓을 때도 일월·성진·사시·팔정(八正)의 기를 점후(占候)한다는 것은⁶⁰⁾ 바로 이러한 증거이다. 특히 침구치료에서는 시술의 금기일이 존재했다는 것도 큰 특징이다. 갑·을일에는 머리부위에 침놓는 것을 금하고, 병·정일은 어깨와 목부위에, 무·기일은 사지와 복부에 경·신일은 허벅지와 무릎부위, 임·계일은 발부위에 침놓는 것을 금한다고 말한다.⁶¹⁾ 이외에 8절기의 무·기일은 대금(大禁)의 날이므로 인체와 구궁의 대응관계를 고려하여 침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⁶²⁾ 오행설과 구궁설(九宮說)

57) 傅維康 吳鴻洲, 『黃帝內經導讀』, 巴蜀書社, 1992, p. 192.

58) 『却穀食氣』(魏啓鵬, 胡翔驊, 『馬王堆漢墓醫書校釋』(貳), 成都出版社, 1992), p. 1, “却穀者食石韋 朔日食質 日駕一節 旬五而[止] [旬]六始銑 日□[一]節 至晦而復質 與月進退”.

59) 山田慶兒, 『九宮八風說と少師派の立場』, 『東方學報』 52, 1980, p. 222.

60) 『黃帝內經素問』 卷 8, 八正神明論, p. 367, “凡刺之法 必候日月星辰 四時八正之氣 氣定乃刺之”.

61) 『黃帝內經靈樞』(下冊) 卷 9, 五禁, p. 178.

62) 『黃帝內經靈樞』(下冊) 卷 12, 九針論, p. 404, “其大禁 大禁太一所在之日 及諸戊己”.

의 결합에 의한 영향이 분명하며, 시일금지(時日禁忌) 중 혈기와도 일정 정도 관련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실한 논거는 찾기 어렵다. 반면 간장병자는 경·신일에, 심장병자는 임·계일, 비장병자는 갑·을일, 폐병자는 병·정일, 신장병자는 무·기일에 각각 사망한다고 예측했던 사망기일 추정법은⁶³⁾ 간지오행설에 의한 것으로 오행상극관계를 고려한 것이 분명하다. 간은 목에 배당되는데, 목극금(木克金)으로 목과 금은 상극관계에 있으므로 금에 해당하는 경신일을 사망일로 추정한 것 같다. 나머지는 이 방식으로 유추하면 된다.

한편 치료에서 고려된 또 다른 요소는 기상의 변화였다. 이상기후가 발병요인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4계절의 기후변화와 질병이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기후의 변화로 지목된 현상은 주로 풍(風)·한(寒)·서(暑)·습(濕)·조(燥)·화(火) 혹은 열(熱)의 6기였다. 정상상태에서는 이 6기가 만물성장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지만, 이것이 과부족이 될 경우나 혹은 그 시기에 맞지 않게 나타날 경우는 사기로 변하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관념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형성된 이론이 이른바 오운육기론(五運六氣論)이다. 오운육기론에서 오운은 오행의 5덕을 가리키는데, 오운을 천간에 배당하고 육기는 지지에 배당하여 매 1년간의 질병발생의 규율과 특징을 이론화한 것이다.⁶⁴⁾ 한대 이 이론은 아직 완비되지 못하고 서로 다른 관점에 혼재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는데,⁶⁵⁾

63) 『黃帝內經素問』 卷 5, 平人氣象論, p. 253.

64) 五運六氣論에서 五運의 天干배당은 木火土金水의 五行相生 순서에 甲乙, 丙丁, 戊己, 庚辛, 壬癸를 각각 붙여넣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식과 차이가 없으나, 六氣의 地支배당은 사뭇 독특하다. 우선 六氣를 3陰(厥陰, 少陰, 太陰), 3陽(少陽, 陽明, 太陽)으로 나누고, 또 六氣중 巽와 火는 기본상 같은 부류이므로 五行에 맞추기 위해 이를 각각 君火, 相火로 호칭한다. 그 뒤 地支를 배당하는데 그 결과는 子午는 少陰君火, 寅申은 少陽相火, 丑未는 太陰濕土, 卯酉는 陽明燥金, 巳亥는 厥陰風木, 辰戌은 太陽寒水가 된다. 지지를 이렇게 배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方藥中, 許家松,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人民衛生出版社, 1984; 1990, pp. 19-20을 참고하라.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해되고 있는 것 같다. 오운은 대운(大運), 주운(主運), 객운(客運)으로, 육기는 주기와 객기로 각각 나뉜다. 대운은 매년 기후변화와 이에 상응하여 발생하는 오장육부의 변화의 일반규율이 고, 주운은 매년 5개 운계(運季)의 일반적이고 정기적인 기후변화를 말하며, 객운은 매년 5개 운계 중에 나타나는 특수변화에 해당한다. 한편 주기는 주운의 의미와 기본적으로 같아 매년 24절기기후의 일상적인 변화인 반면, 객기는 매년 절기상의 이상변화를 의미한다. 운과 기의 성쇠는 운기 각각에 배당된 간지의 오행관계가 상생인지 상극인지를 판별하여 결정한다.⁶⁶⁾ 운기성쇠가 판별되면 주와 차가 결정되고, 또한 매년의 복잡한 기후변화를 추산할 수 있게 된다. 상극관계에 의거 기생운(氣生運)은 순화(順化), 기극운(氣克運)은 천형(天刑), 운생기(運生氣)는 소역(小逆), 운극기(運克氣)는 불화(不和)가 되는데, 순화의 해는 변화가 비교적 적으나 소역과 불화의 해는 변화가 비교적 크고 천형의 해는 변화가 매우 격렬하다는 논법이다.⁶⁷⁾ 이러한 운기학설은 궁극적으로 매년의 기후변화를 추측하여 이에 상응하여 어떠한 질병이 유행할 것인지를 알아내며, 동시에 일반적 기후변화 외에 매년 특수한 기후변화가 생길 경우 그때 유행 가능한 질병은 무엇인지 추측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질병에 대한 대책을 통해 치료와 예방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운기론은 60간지 주기만을 사용하여 기후와 질병을 기계적으로 대응시킴으로 질병 자체의 변화규율을 설명하지 못하였고, 더구나 실제의

65) 廖育群, 「東漢時期醫學發展之研究」, 『傳統文化與現代化』, 1994-3期, pp. 70-71.

66) 辛亥年을 예를 들면,辛은 水에 해당되므로 辛亥年의 大運은 水運이고, 地支 亥는 3陰중의 厥陰에 해당되는 風, 오행은 木에 해당되므로 辛亥年을 담당하는 司天의 氣는 風木이 된다. 그런데 水와 木은 水生木이므로 이를 運氣에 적용하면 運生氣이므로 이해는 運盛氣衰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運生氣, 運克氣는 運盛氣衰의 현상이 나타나고, 氣生運과 氣克運은 氣盛運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석한다 (方藥中, 許家松,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p. 26 참조).

67) 方藥中, 許家松,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p. 27.

천상(天象)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결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⁶⁸⁾ 그렇지만 운기론은 천체의 순환원리 속에서 질병예측의 규칙성을 발견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방사의학(方士醫學)의 일련의 성과로 평가할 수는 있고 절기와 운기의 연관성을 말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흥미를 끈다.

이렇게 의술에서 시간 및 기상요인을 강조한 것은 치료상의 길흉을 고려한 결과이다. 그러나 의술에서의 길흉의기(吉凶宜忌)는 이것뿐만은 아니다. 마왕퇴백서(馬王堆帛書)의 『우장도』(禹藏圖)는 태반은 태아생명의 근원인데, 이것은 모태와 분리된 후에도 일정기간 태아와 감응, 영향을 미치므로 태반매장의 시간과 방위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 것,⁶⁹⁾ 산부와 의 내왕과 접촉을 꺼리는 기휘풍속 등은⁷⁰⁾ 일종의 산과 금기에 해당될 것이지만, 지리환경 및 방위가 인간수명의 장단과 관련된다고 주장된 것도⁷¹⁾ 매우 중요한 의학상의 방위금기에 속한 것으로 간과할 수 없다. 이런 금기들은 주로 의료경험의 누적과 수술(數術)의 논리상 발전에 따른 예방의학차원에서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의학생활에서의 시간은 곧 효율과 신속을 강조했던 행정적 시간으로서의 시제보다는 오행이나 팔괘로 도식화된 관념화된 시간이 보다 중요하였다. 질병과 생명을 다루는 만큼 자연과 다만 절기나 계절은 여전히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간관념이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⁷²⁾

68) 鄒學熹, 鄒成永, 『中國醫易學』, 四川科學技術出版社, 1989, pp. 298-2990.
 69) 李建民, 『馬王堆漢墓帛書·禹藏埋胞圖'箋證』,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65-4, 1994, pp. 763-780.
 70) 『論衡』 卷 23, 四諱篇.
 71) 『黃帝內經素問』 五常政大論, “東南方 陽也 陽者 其精降于下 故右熱而左溫 西北方 陰也 陰者 其精奉于上 故左寒而右涼 … 陽精所奉 其人壽 陰精所降 其人夭”.
 72) 5장의 일부는 이 논문의 전체 구도를 위해 卒考, 『중국 고대 方士醫學의 養生術과 그 사회적 영향』(『中國古中世史研究』 18, 2007, pp. 300-304)를 수정 보완하였다.

6. 맺음말

이상에서 보았듯이 고대중국에서 12시제나 16시제 등 통일된 시제가 관철되었다고 해도 문서행정, 농사활동, 제사와 의례, 의료활동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각기 다른 시간관념과 시간분할의 적용되었다.

고대 중국의 문서행정에서는 하루를 반일, 1/3일씩 세분하기도 했지만 시각이나 분단위의 세밀한 시간까지 기록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계시행정을 구축하였다. 행정처리의 속도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시간의 정밀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양한 시칭의 존재는 문서행정의 효율성을 뒷받침하는 도구였을 것이다. 또한 상계문서의 작성 등에서는 한 해의 치적을 마무리한다는 측면에서 세종(歲終)이라 하여 연단위 시간의 종점을 중시하였다. 반면에 행정에서 계절에 따른 노동량의 기준변화 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농사활동이나 제사의례, 의료활동 등 문서행정이외의 분야에서는 사계절이 가장 중요한 지표였다. 계절의 변화가 곧 어떤 행위를 유발하는 근거였으며, 자연의 규율에 합치하고 시간의 순서에 순응하고자 했던 고대인들에게 사계절은 절대적인 지표였던 것이다. 농사활동에서는 계절 이외 월령이나 절기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의료활동에서는 오행이나 팔괘에 의한 5단계 혹은 8단계 시간구분법 및 질병의 차등에 따른 시간분할을 자주 활용하였다. 특히 의료활동에서의 시칭은 문서행정과도 확연히 다른 명칭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독특성이 엿보인다. 여하튼 이 두 분야는 시간의 순환과 반복 즉 주기성이라는 특성과 비교적 잘 부합한 영역이었다. 그러나 제사와 의례에서는 원회의나 곡삭 등에서 보듯 초하루 등 시간단위의 시작점이 강조되기도 하고, 혹은 주야의 시작점 등 음양이 교대되는 특정한 시점이 중시되거나 상신일(上辛日)처럼 특정시점에 재계

와 자신(自新) 등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주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제국 내 통일된 시제와 무관하게 고대사회의 각각의 활동분야와 영역의 실제생활에서는 각기 다른 시간관념과 시간활용이 나타났던 것이다.

시간활용의 차이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위에서 언급한 네 분야 이외에도 점복(占卜)분야가 있을 것이다. 점복은 기본적으로 시간이나 공간의 선택법이기 때문에 점술가들의 시간인식과 활용의 문제는 매우 중요했지만, 추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居延新簡』(文物出版社, 1990)
『居延漢簡』(『居延漢簡釋文合校』, 文物出版社, 1987)
『管子』(『管子校注』, 中華書局, 2006)
『南齊書』(中華書局標點校勘本)
『論衡』(『論衡校釋』, 中華書局, 1990)
『敦煌懸泉置月令詔條』, (中國文物研究所 編, 中華書局, 2001)
『馬王堆漢墓醫書校釋』(貳),(魏啓鵬, 胡翔麟, 成都出版社, 1992)
『史記』(中華書局標點校勘本)
『四民月令校注』,(石聲漢 校注, 中華書局, 1965)
『岳麓書院藏秦簡』(參) (上海辭書出版社, 2013)
『呂氏春秋』(정하현 역, 『여씨춘추』, 소명출판, 2011)
『禮記』(孫希旦 撰, 『禮記集釋』, 中華書局, 1989)
『張家山漢墓竹簡』(文物出版社, 2006)
『周禮』(『周禮鄭注』 四部備要本, 臺灣中華書局)
『晉書』(中華書局標點校勘本)
『春秋穀梁傳』(『春秋穀梁經傳補注』, 鍾文丞, 中華書局, 1996)
『春秋左氏傳』(楊伯俊 編, 『春秋左傳注』, 中華書局, 1990)
『漢書』(中華書局標點校勘本)
『鶡冠子』(四部備要本)
『黃帝內經素問』(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人民衛生出版社, 1995)
『黃帝內經靈樞』(河北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95)
『淮南子』(『淮南鴻烈集解』, 中華書局, 1989)
『後漢書』(中華書局標點校勘本)

2. 2차 자료

- 江曉原, 鈕衛星 著 (2005), 『中國天學史』, 上海人民出版社.
- 傅維康 吳鴻洲 (1992), 『黃帝內經導讀』, 巴蜀書社.
- 吳國盛 (2006), 『時間的觀念』, 北京大學出版社.
- 鄒學熹, 鄒成永 (1989), 『中國醫易學』, 四川科學技術出版社.
- 彭衛 楊振紅 (2002), 『中國風俗通史(秦漢卷)』, 上海文藝出版社.
- 馮時 (2007), 『中國天文考古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郝樹聲, 張德芳 (2009), 『懸泉漢簡研究』, 甘肅文化出版社.
- 胡家聰(1995), 『管子新探』,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金谷治(1987), 『管子的研究— 中國古代思想史の一面』, 岩波書店.
- 李成珪 (2010), 「計數화된 인간」, 『中國古中世史研究』 24.
- 李成珪 (근간), 「秦漢帝國的 計時行政」.
- 崔德卿 (2002), 「中國古代的 物候와 農時豫告」, 『中國史研究』 18.
- 崔振默 (2007), 「중국 고대 方士醫學의 養生術과 그 사회적 영향」, 『中國古中世史研究』 18.
- 崔振默 (2008), 「節氣와 중국 고대인의 생활, 銀雀山漢簡의 “30時”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107집.
- 高恒(1999), 「漢代上計制度論考; 兼評尹灣漢墓木牘“集簿”」, 『簡牘研究』 1999-1.
- 廖育群 (1994), 「東漢時期醫學發展之研究」, 『傳統文化與現代化』, 1994-3期.
- 方藥中, 許家松 (1990),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人民衛生出版社.
- 樊志民 朱宏斌(2002), 「月令書與中國傳統農業管理思想之嬗變」, 『中國農史』 2002-3.
- 傅道彬(2009), 「“月令”模式的時間意義與思想意義」, 『北方論叢』 2009-3.
- 傅振倫(1990), 「漢代計時方法」, 『文物春秋』 1990. 4.
- 尙民杰 (1999), 「居延漢簡時制問題探討」, 『文物』 1999-10.
- 宋會群 李振宏 (1993), 「秦漢時制研究」, 『歷史研究』 1993-6.
- 于振波 (2010), 「秦律中的甲盾比價及相關問題」, 『史學月刊』 2010-9.
- 李建民(1994), 「馬王堆漢墓帛書·禹藏埋胞圖·箋證」,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65-4.
- 李均明 (2009), 「秦漢 文書制度考察」, 『동아시아 자료학의 가능성』, 성균관대학

교출판부.

- 李天虹(2012), 「秦漢時分紀時制綜論」, 『考古學報』 2012-3.
李解民(1996), 「秦漢時期之一日十六時制」, 『簡帛研究』 2.
李欣 (2012), 「東漢“上陵之禮”考述」, 『咸陽師範學院學報』 2012-9.
張德芳 (2004), 「懸泉漢簡中若干“時稱”問題的資料」, 『出土文獻研究』 6.
張樹國(2012), 「詩性時曆: “月令”與漢代祭祀詩關係探析」, 『杭州師範大學學報』
2012-9.
張瑜(2008), 「試論漢代“元會儀”所體現的音樂政治論思想」, 『交響: 西安音樂學院
學報』 27-4.
田家溧(2011), 「告朔禮考」, 『華北水利水電學院學報』, 27-2.
陳久金(1983), 「中國古代時制研究及其換算」, 『自然科學史研究』 2-2.
陳夢家(1980), 「漢簡年曆表敘」, 『漢簡綴述』, 中華書局.
詹冬華(2008), 「中國古代三種基本的觀時方式: 切入古代時間意識的一個維度」,
『文史哲』 2008-1.
山田慶兒(1980), 「九宮八風說と少師派の立場」, 『東方學報』 52.

원고 접수일: 2013년 10월 31일

심사 완료일: 2013년 11월 23일

계재 확정일: 2013년 12월 3일

ABSTRACT

中国古代社会时间的活用

崔振默(首爾大學 人文學研究院)

本文主要推定在中国古代, 虽然贯彻了统一的十二时制或十六时制, 但在多元的生活领域却有不同时间观念和分割时间的方式, 可以考证此种推定的领域有文书行政、农业活动、祭祀与仪礼, 以及医疗活动等, 并且针对这些领域中具体的时间活用和事例进行比较分析。

古代中国的文书行政中, 构建了将一天分为半日、或是三分为1/3日, 并且记录时刻和分单位等详细时间的高效率计时行政。由于重视行政处理的速度, 所以不得不关注时间的精密度和准确性。另外, 上计文书的编写等过程中还包含整理完成一年的业务这一意义, 以此表示岁终, 重视年单位的终点。反面, 虽然在行政上并不是没有随着季节变化而产生的劳动力变化, 但其并不占很大比重。除农业活动、祭祀仪礼、医疗活动等文书行政以外的领域中, 四季是最为重要的标准。因为, 季节变化就是意味着会导致某种行为的发生。对于试图与自然规律相一致, 顺应时间顺序的古代人来说, 四季便是绝对的标准。农业活动中, 除季节以外, 月令、节气也占据不小的比重; 医疗活动中主要活用根据五行、八卦区分来的五分法或是八分法的时间分割法, 以及随着疾病的次等进行时间分割的方法。在这两个领域是比较符合时间的循环和反复, 即周期性这一特征的领域。但是, 祭祀和仪礼中, 元会议或是告朔

会强调如同朔日等时间单位的初始点，又或是重视昼夜的初始点等阴阳交替的特定时间点，如同像上辛日，在特定的时间点赋予斋戒、自新等意义。像这种与帝国内部统一的时制无关的古代社会的各个活动领域的实际生活中，会反映出各自不同的时间观念和时间的活用。

另外，有关时间活用的差异比较显著的其他领域，即除上述四个领域以外，还有占卜这一领域。由于占卜是基于时间和空间的选择法而进行的，占术家们的时间观念和活用也极为重要。这也是本文日后需要补充的部分。